



■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3총사 성적표

잉글랜드 프로축구 무대에서 뛰는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3총사의 희비가 울해 극명하게 엇갈렸다. '산소 탱크'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은 30일(한국시간) 미들즈브러와 2008-2009시즌 정규리그 20라운드 끝으로 올해를 마감한 가운데 부상을 털고 안전하게 부활해 팀 내에서 주전 입지를 굳혔다. 반면 부상에서 회복된 김두현(26·웨스트브롬)은 2%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설기현(29·풀럼)은 시즌 개막전에서 골을 넣고도 이후 주전 경쟁에 밀린 데다 부상 악재까지 겹쳐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Three portrait photos of Park Ji-sung, Kim Do-hyun, and Seol Gi-hyun. Below each photo is a name in a blue box: 양호 (Park Ji-sung), 부진 (Kim Do-hyun), 최악 (Seol Gi-hyun).

◇박지성=박지성에게 2008년은 의미 있는 해였다. 무릎 수술의 공백을 딛고 세계 최강 구단인 맨유에서 쟁쟁한 라이벌들을 제치고 주축 선수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올해 5월까지 열린 지난 시즌에서 12경기(1골1도움)를 뛰며 맨유의 프리미어리그 2회 연속 및 통산 17번째 우승을 도왔다. 프리미어리그 2회 연속 우승을 맞춘 아시아 선수는 박지성이 처음이다. 지난 시즌에는 선발 10경기, 교체 1경기 등 수차례로 스타팅 멤버로서 입지를 확고히 굳혔다. 루이스 나니와 라이언 깁스 등에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오사카(일본)와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 결승에서는 풀타임으로 그라운드를 누비며 한국인 최초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지난 5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준결승까지 네 경기 연속 풀타임으로 활약하고도 정작 첼시와 결승에서는 결정적인 아쉬움을 한꺼번에 날려 버린 것이다. 맨유도 최근 2연승을 포함해 정규리그 7경기 연속 무패(5승2무) 행진으로 시즌 11승5무2패를 기록, 3위까지 뛰어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다만 박지성은 골 결정력 부족에 대한 부담을 하루빨리 털어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박지성은 지난 9월22일 첼시와 정규리그 5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시즌 1호 골을 터트린 이후 벌써 석 달 넘게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슈팅을 18차례 시도해 단 한 차례만이 골 그물을 출렁였다. 특히 최근 영국 언론을 통해 맨유와 재계약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만큼 내년 초부터는 골 결정력에 대한 의문 부호를 제거해야 한다. 다만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박지성을 시즌 중에 반드시 붙잡겠다는 의지를 전하며 박지성에 대한 변함 없는 믿음을 보여줬다. ◇김두현=김두현에게는 좌절과 희망을 동시에 느낀 한 해가 됐다. 김두현은 무릎 부상으로 한동안 그라운드에 나서지 못하다가 최근 부상에서 회복하면서 치열한 주전 경쟁에 다시 뛰어어들었다.

아! 너무 아깝다

30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트래퍼드에서 열린 미들즈브러와의 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사진 왼쪽)이 날린 슈팅이 골문을 비껴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성 반드시 잡겠다”

차범근·변병주 감독 구단서 재계약 방침

맨유 퍼거슨 감독 밝혀 “중요한 역할 맡고 있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최근 영국 언론을 통해 재계약 ‘불투명’ 가능성이 제기됐던 박지성(27)을 반드시 잡겠다고

는 의지를 드러냈다. 영국 맨체스터 지역지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는 30일(한국시간) “퍼거슨 감독은 이번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 박지성, 카를로스 테베스와 재계약을 원하고 있다”면서 “구단이 아직 계약 연장에 대한 언질을 주지 않았지만 박지성은 이미 ‘퍼거슨 사단’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는 최근 영국 대중지 ‘뉴스 오브 더 월

드’가 “박지성과 맨유의 계약 기간은 2009-2010 시즌에 끝나는데 아직 계약연장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다. 맨유에서 장기간 뛸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던 내용을 일축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는 이어 “퍼거슨 감독은 다음 시즌 박지성의 계약이 만료되기 전까지 새로운 협상카드로 박지성을 붙잡고 싶어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프로축구 수원 삼성과 대구 FC가 올해로 임기가 끝나는 차범근(55), 변병주(47) 감독과 각각 재계약 방침을 굳혔다. 안기환 수원 단장은 30일 “차범근 감독과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신뢰와 믿음이 형성됐다”면서 “계약 관계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재계약 의지를 드러냈다. 수원은 이번 시즌 컵대회와 정규리그에서 ‘더블 우승’을 달성한 차 감독의 지도력을 높게 평가해 역대 프로축구 사령탑 중 ‘최고 대우’를 해줄 가능성이 크다. 2004년 수원과 3년 계약을 했던 차 감독은 2006년 말 2년 재계약에 성공했다. 수원은 선수들의 휴가가 끝나는 내년 1월 7일 이전에 차 감독과 재계약을 매듭지기를 방침이다. 올 시즌 ‘공격 축구’로 화제를 모았던 대구 FC도 올해 말 2년 계약이 끝나는 변병주 감독과 재계약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중준 대구 사장은 “변 감독이 대구 축구의 정체성을 확립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전날 변 감독과 만나 일단은 재계약하는 쪽으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한편 종전 14개 구단 중 성남 일화와 울산 현대가 사령탑을 교체한 가운데 인천 유나이티드는 장외통 전 감독이 시즌 후 일본 J-리그 오미야 아르디자로 옮기고 나서 후임을 찾고 있다. /연합뉴스

■ 내년 이란전 앞둔 허정무호 ‘모의고사’ 일정 확정

시리아전 2월 1일
바레인전 2월 4일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꿈을 안고 내년 1월10일 소집되는 축구 대표팀이 중동의 ‘강호’ 이란과 월드컵 최종예선을 앞두고 시리아, 바레인을 상대로 모의고사를 치른다. 대한축구협회는 30일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이 내년 2월1일 시리아, 같은 달 4일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친선경기를 갖는다고 밝혔다.

허정무호는 내년 2월11일 이란 테헤란의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펼쳐질 이란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4차전을 앞두고 평가전 상대를 찾아왔다. 국제축구연맹(FIFA) 42위인 한국은 FIFA 랭킹 105위인 시리아와 역대 A매치에서 통산 2승1무1패의 우위를 점했지만 그동안 박빙의 승부를 펼쳤다. 또 FIFA랭킹 80위인 바레인에는 9승3무2패로 크게 앞서 있다. 국내 K-리그 23명으로 소집명단을 꾸린 대표팀은 1월10일 제주도에서 모여 프로·대학팀과 같은달 16일과 18일, 20일, 23일 등 네 차례 연습경기를 치르고 29일 UAE 두바이로 건너간다. 결전의 땅인 이란에는 2월5일 입성한다. 대표팀 관계자는 “이란과 경기 스타일이 비슷한 시리아와 바레인을 평가전 상대로 골랐다. 두 차례 평가전을 통해 시차는 물론 이란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지성-주전으로 자리 매김
두현-부상 회복 최근 복귀
기현-13경기 연속 결장 중

올 시즌 선발 8경기, 교체 4경기 등 모두 12경기에 출전한 김두현은 모두 14차례의 슈팅을 날렸지만 아직 골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 웨스트브롬이 현재 5승3무12패로 강등권에 놓여 있는 점도 부담스럽다.

◇설기현=‘스나이퍼’ 설기현은 올 시즌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8월16일 열린 개막전만 해도 설기현은 골을 터뜨리면서 올 시즌 활약을 예고하는 듯했다. 당시 설기현의 득점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레딩 소속으로 뛰던 지난해 5월 14일 블랙번전 득점 이후 무려 1년 3개월여 만에 설기현이 맞은 정규리그 골이자 지난 시즌 초반 풀럼 유니폼을 입은 이후 처음 맞은 ‘눈 깜짝이 대비골’이었다.

그러나 설기현은 개막전을 포함해 선발 2경기, 교체 2경기 등 시즌 초반 4경기에만 출전하고 나서 이후 1군 선수로 그라운드에 나설 기회를 전혀 잡지 못했다. 지난해 연말 로리 산체스 감독의 뒤를 이어 풀럼 지휘봉을 잡은 로이 호지슨 감독의 신임을 얻지 못하면서 출근 뺨치기를 지키거나 2군 경기에 출전해야 했고, 한 때 감독과 불화설이 나돌 정도로 팀에서 입지를 굳히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부상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진 설기현은 지난 10월5일 웨스트브롬전 이후 13경기 연속 결장했다. /연합뉴스